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2월 19일 (금)

(음력 10월 30일)

Пятница

19 декабря 2025 г.

№ 49 (1216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월 22일은 러시아에서 동력분야 근로자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50명,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교육프로그램 성료

사할린주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1회 교육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를 통해 50명의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 행정' 전문 분야를 습득했다. 지난 12월 17일(수) 주 정부 청사에서 이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졸업을 축하하며 "여러분은 특수작전 참전용사를 위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 프로그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연방 프로그램 '영웅의 시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로 단련되고 조국에 충성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의 새로운 인재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삶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지사는 "학업에 대한 높은 관심, 적극적인 삶의 자세, 사할린과 쿠릴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각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프로그램 졸업생 약 12명은 이미 주 및 지방자치체 산하 기관에 취업했다. 주지사는 모

든 교육 참가자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기능은 사할린주 국가행정부와 '조국 수호자' 재단의 사할린 지부가 담당할 것이며,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 취업은 이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지역 정부 기관들으 제대한 각 전사들의 재활, 재교육 및 향후 취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귀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 경험은 특수군사작전 종결 후에 참가자들의 대규모 귀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이 주 및 지방자치체와 그 산하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졸업식 후 주지사는 프로그램 졸업생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2026년 제2회 교육 과정 시작을 발표했다. 지원 접수 시작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참전용사들은 관심 있는 질문과 제안을 할 기회를 얻었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지역에 고정밀 자격 센터를 설립한다는 제안을 지지했다. 이 외에도 군인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사할린주,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국가 환경상 수상

사할린주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가 주관하는 제5회 국가 환경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섬 지역의 생태 및 지속가능발전부는 대중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권위 있는 '에코지여' 부문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이 높은 상은 탄소 중립의 조기 달성에 대해 수여됐다.

사할린 기후 실험은 생태적 진보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이 결합된 현저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2019-2025년)가 이를 말해준다. 탄소 중립이 달성됐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789,000톤에서 -82,000톤 CO₂ 환산량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지역총생산은 51% 증가했다.

지역 내 대기 배출 총량은 28% 감소했다. '청정 공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년도인 2020년 대비 35% 감소했다.

생태 전환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촉매제가 됐다. 사할린주는 3년 연속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투자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삶의 질 평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안드레이 사마토브 생태 및 지속가능발전부 장관은 "이번 수상은 사할린 정부, 기업 및 주민들의 조화로운 협력의 결과"라며 "우리는 탄소 중립이 경제 성장과 모순되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신문 창간 기념일에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당신들의 기사는 우리가 새로운 성과를 이루도록 영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6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 모니터링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며 '녹색' 지역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의 국가 환경상(2021년 시작)은 러시아의 주요 환경상 중 하나다. 각 부문에서 대중 투표 결과와 전문가 결정에 따라 두 개의 상이 수여된다. '에코레기온(생태지역)' 부문은 CO₂ 배출 감소 동향, 저탄소 기술 도입, 환경 보고서의 투명성, 시민들의 '녹색' 이니셔티브 참여도를 평가한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국립대 신입 총장 대행에 알렉세이 오그네브 임명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12월 17일부로 알렉세이 오그네브 박사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물리수학 박사인 오그네브 직무대행은 앞서 사할린 국립대학교 과학·발전 부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영재 아동 센터 '사할린테크.알라이트' 설립과 '500명의 학생' 프로그램 출범을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전 총장은 자진 사퇴 후 과학 및 교직 활동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2년 반의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교육·과학·혁신 분야의 역동적인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할린에 립스키-코르사코브 음악대학 분교 개설

사할린주가 문화·음악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밟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음악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립스키-코르사코브 국립 음악대학의 분교가 사할린에 설립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연방 차원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대학 분교는 사할린 주민은 물론 극동 지역의 재능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졸업생들은 지역 내 주요 오케스트라와 극장에서 활동하거나 실내악 앙상블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자들로부터 고등 음악 교육을 고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분교는 2026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 비상 사태 기관, 새해 연휴 안전 조치 강화

사할린주는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안전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와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해 에너지·운송 분야, 정부 기관 등이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사할린주 정부 언론센터를 통해 전해졌다.

연휴 기간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방안은 사할린주 지역 대테러위원회와 작전본부의 합동 회의에서 논의됐다.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문화·대중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대테러 안전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과 비상사태부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건물과 시설의 소방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방·비상 대응·긴급 복구 서비스와 구급차 팀의 당직 근무 체계가 강화된다. 도로 상황 통제와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인력과 교통경찰 배치도 확대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곧 마무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탄소 중립 달성 경험, 전국 확산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는 국가평의회 산하 '투자'위원회 정기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방 부처 대표들과 각 지역 정부 수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안건 중 하나는 사할린 지역에서 진행 중인 기후 실험의 시행 결과를 예비 집계하고, 저탄소 발전 관련 관행을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이었다.

앞서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섬 지역에서 탄소 중립, 즉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간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 독자적인 실험을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사할린주는 이 실험의 목표를 2025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조기에 달성했다. 해당 성과는 국제 포럼 '지속가능 발전의 섬들: 기후 측면'에서 공식 발표됐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회의에서 "저탄소 발전으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내년은 사할린주의 기후 실험 경험이 전국적 차원에서 도입되는 결정적인 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연방의 7개 지역이 이미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관련 과제 전반에 걸쳐 사할린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탄소 발전 관행 도입에는 현재 모스크바를 비롯해 사하 공화국(야쿠치아), 코미 공화국, 타타르스탄, 이르쿠츠크주, 아르한겔스크주, 스타브로폴리 변경 등이 착수한 상태다. 사할린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연방 구성주체에는 지역별 온실가스 카다스트르(등록부)를 구축하고 자체 기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것이 권고됐다. 탄소 중립 달성은 운송, 에너지, 천연자원 채굴 및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단계적 조치 시행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데이터 축적은 향후 목표 지표 설정과 추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에체슬라브 알렌코브 사할린주 정부 부총재는 "사할린주가 러시아 최초의 기후 실험 시행지로 선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 중 유해물질 배출량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역총생산(GRP)은 51%, 투자 규모는 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할린주는 투자 매력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할린주는 교통수단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인프라 시설과 주거지를 가스 공급망에 적극 연결하는 한편 불법 쓰레기 매립장을 정비하고 산불 발생을 크게 줄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지역의 환경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민 삶의 질 평가에서도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지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도 도입됐으며, 현재 36개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이자 기후 및 수자원 담당 대통령 특별대표인 루슬란 에텔게리예브는 "러시아는 약 7년 전부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당시 사할린이 기후 실험 지역으로 선정됐고, 이곳에서 축적된 성공적인 경험이 다른 지역들이 유사한 작업에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여러 지역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남부 지역부터 북극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후대를 아우르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크라예워이 러시아 경제개발부 경쟁·에너지효율·생태국 국장은 "사할린은 탄소 균형 관리 접근법과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 시스템을 시험하는 시범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탄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사할린에는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회계 도구가 도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 덕분에 사할린은 2025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할린의 경험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성공적인 관행들은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조정·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주지사 특별대표이자 기후·지속가능발전 전문가인 밀레나 밀리츠는 "사할린에서 진행된 러시아 최초의 기후 실험은 5년간 다양한 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의 결과로, 이는 지역 차원의 성과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연방 각 지역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기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2030년과 2060년 국가 목표 달성 여부와 국제 기후 협에서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및 수자원 담당 대통령 보좌관 루슬란 에텔게리예브가 언급했듯,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평의회 위원들은 투자자들의 토지 접근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토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핵심 자원으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과 각종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에서는 산림용지와 농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 인허가 절차 소요 기간 단축, 보다 유연한 요건 도입 등의 개선책이 제시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기업 협회와 연방 당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관련 규제 문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평의회는 이와 관련해 총 100건 이상의 신청 및 요청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의 결과가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할린주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전반의 투자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연말 위문품 전달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연말 위문



김경협 청장, 안산 고향마을을 직접 찾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연말을 맞아 약 750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12월 12일(금)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지역 사할린동포 주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달식에서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연말을 맞아 고향마을을 포함, 전국 20개 지역에 거주하는 3,2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강화군에서 생산된 햅쌀을 전달했다.

아울러,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과 경북 고령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약 80명의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포베다' 박물관 단지에 군사 장비 전시장 개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한 '포베다(승리)' 박물관-기념관 단지에 군사 장비 전시장이 개관했다. 이번 전시에는 러시아 산 무기 체계와 대조국전쟁 당시 붉은 군대가 사용했던 포병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은 사할린 주 정부 언론 센터를 통해 전해졌다.

개장식에 참석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전시된 장비들은 러시아 군대의 역사와 전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섬 주민들이 군사 장비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러시아 국방부와 연방보안국 산하 사할린주 국경수비대 관리국이 대조국전쟁 및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기증한 국산 무기 24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된 장비들은 과거 포병 부대, 공수부대 및 국경수비대 등에서 실제로 운용됐던 장비들이다.

전시장에는 1938년의 122mm 사단 곡사포를 비롯해, 최초의 국산 음향 자동 유도 어뢰 SET-40, 85mm 사단포 D-44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аллею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я «Побе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открыли аллею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Экспозиц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течественные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й, а также орудия,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 красноармейцы во время сражений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аллеи пос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экспозиции оруд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казывали мощь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С открытием аллеи кажд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полу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боевым орудия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насколько сильна Россия.

Экспозиц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24 образца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которые передали в дар региону Минобороны РФ и Пограни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есть 80-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над мили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ся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техника ранее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в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воздушно-десантных и пограничных войсках.

Гост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на аллее 122-мм дивизионную гаубицу образца 1938 года, первую отечественную торпеду с аку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ой самонаведения СЭТ-40, 85-мм дивизионную пушку Д-44 и другие образцы техники.

〈아에로플로트〉, 유즈노사할린스크 발 2026년 보조 항공권 판매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항공권은 크라스노야르스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전체 운항 노선을 25개로 확대했다. 이같은 내용은 항공사 홍보실을 통해 전해졌다.

극동 지역 주민의 경우 모스크바행 항공권은 1만 루블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 요금은 5,400루블리로 책정됐다. 하바롭스크 주민은 사할린까지 6,000루블리에 항공

편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 항공권 요금은 750루블리다.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항공편 요금은 7,000루블리로 안내됐다.

또한 특정 우대 대상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항공권이 제공된다. 대상에는 23세 미만 학생,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1급 장애인, 어린이시절부터 2·3급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된다.

«Аэрофлот» открыл продажу субсидированных билет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тарифам 2026 года

Рейсы «Аэрофлота» будут летать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Москву, Хабаровск и Владивосток. Субсидированные билеты доступны также в Красноярск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авиакомпания расширила географию до 25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еревозчика.

Для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илеты в Москву обойдутся за 10 тысяч рублей, а для маленьких пассажиров — за 5,4 тысячи. Хабаровчане смогут прилететь на Сахалин за 6 тысяч рублей, детский билет стоит 750 рублей. А перелет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будет стоить 7 тысяч.

Кроме того, льготникам предлагают еще более дешевые билеты.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студенты до 23 лет, пенсионеры старше 60 лет, инвалиды I группы, инвалиды с детства II и III группы, а также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러시아, 한 달 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한국 라면 수입

2025년 11월에 러시아는 59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인스턴트 면을 수입했다. 이는 적어도 2000년 이후 최고 월간 실적이라고 타스통신이 한국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서 영주귀국 성경자씨 "죽기전 평양 언니 만나는 게 소원"

탄광으로 끌려온 아버지, 흠어진 가족...

사할린이 남긴 '4남매의 비극'

"의사 돼서 네 다리 고쳐줄게"... 동생이 평생 간직한 언니의 약속

(안산=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지난 12일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인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이곳엔 사할린에서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고려인 1~2세 7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고향마을을 방문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노인회 사무실 등을 둘러보며 동포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김 청장의 발걸음을 막아섰다. 고려인 2세 성경자(80) 할머니였다.

성 할머니는 김 청장에게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치면 강대국이 된다"면서 "빨리 통일이 돼 언니를 만날 수 있게 소원을 풀어달라"며 절절히 호소했다.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 간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를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을 잡았다.

말을 마친 성 할머니는 기자에게 집으로 가서 언니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이끌었다. 낯선 이방인을 서슴없이 집으로 안내할 만큼 사람이 그리웠던 듯,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도착한 집은 정부가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제공한 주공아파트 1층이었다. 복도에는 전동차가 놓여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종종 이용한다고 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방 2개짜리 66㎡ 정도의 아담한 보금자리. 집안 곳곳 벽면에 빼곡히 붙은 사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2019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했다는 성 할머니는 나무 작대기로 벽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다. 부모님, 언니와 두 남동생, 하바롭스크 성당 지인들, 친구들 모습까지 사할린 시절의 추억이 시간의 결을 따라 붙어 있었다.

"혼자 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화장실 갔다 나오며 이렇게 사진 보면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언니예요. 나보다 네 살 많아요. 지금 평양에 살고 있어요."

성 할머니가 평양의 성영자(84) 언니를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다. 어린 시절의 한 사고 때문이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홉 살 때 학교 앞에서 뛰어놀다가 공사장 구덩이에 빠졌어요. 엉덩뼈가 튀어나왔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울었죠."

때는 일본 패전 직후, 러시아 군대가 들어온 혼란기였다. 일본인 의사들은 모두 쫓겨나 치료는커녕 진찰조차 받기 어려웠다. 방치된 상처는 그대로 굳어 다리는 평생 삐뚤어졌다.

그 순간 언니가 말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네 다리 고쳐줄게."

언니는 공부를 잘했지만, 1960년대 아버지가 '무국적'을 선택하면서 소련 본토에 있는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졌다. 무국적으로 남은 이유는 언젠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자녀들의 발목을 잡았다.

"사할린에는 대학이 없고, 본토로는 못 가고. 그때 북한 사람들이 와서 북한으로 오라고 막 선전했어요.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결국 언니는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됐다. 그 선택은 두 자매의 60년 이별의 시작이었다.

성 할머니의 부친은 1916년생으로 울산이 고향이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점령한 뒤, 1938년 석탄과 목재가 풍부한 사할린에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자 젊은 조선인 남성들은 탄광과 벌목장으로 강제 징용됐다. 할머니 부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성경자 할머니 (안산=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인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성경자 할머니. 2025. 12. 12. phyeonsoo@yna.co.kr



지난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을 방문한 김경협(오른쪽) 재외동포청장에게 "평양에 있는 언니를 만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성경자 할머니. [재외동포청 제공]

도 이때 끌려갔다. 이후 모친이 세 살배기 언니를 업고 부친을 만나러 사할린으로 갔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언니는 두고 가라'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놔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업고 갔죠." 부친은 사할린에서 탄광 일을 했다. 성 할머니는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또렷이 기억했다.

"아버지 환갑 때 동네 사람들 다 오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춤도 추고... 그때 아버지가 술 한 잔 마시더니 고향 생각하며 우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머니(1924년생)는 하바롭스크에서 생을 마감했다. 두 분은 고향 울산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평양에 간 큰딸을 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 공장에서 버터 등 유제품 만드는 일을 했다. 성당에 다녔고 세례명은 니나다. 나무로 지은 '땀집'에서 살았는데, 밭도 있고 땅도 있는 단독주택 형태라고 했다.

"우리는 빵이 밥이에요. 빵에다 국 끓여 먹고, 감자에 시금치, 양배추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거실에는 러시아 초콜릿과 빵이 놓여 있었다. 근처에 러시아 식품점이 있어 자주 사 온다고 했다.

할머니는 기자에게 초콜릿과 프라니키(쿠키)를 건네고, 식빵 위에 러시아 소시지를 올려 먹여보라며 웃었다.

남동생 두 명은 아직 사할린에 남아 있다. 나이 제한으로 한국에 올 수 없었다. 할머니는 1945년 5월생으로 기준에 맞아 영주 귀국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장애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4남매는 한국과 평양, 사할린으로 흠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며 생이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언니의 남편은 원자력 분야 박사였다고 했다. 모스크바에도 오갔지만, 지금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 아픈 여운으로 남았다.

"저는요. 언니 생각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언니 손자, 손녀, 조카들도 보고 싶고..."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한겨울 상록수 / 김규성

나는, 대체 누가 떠난 보금자리에 허락도 없이
나도 모르는 낯선 여행의 무거운 짐을
야생의 덧처럼 부려놓았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난 황폐의 빈 자리는 누가 채울까
나의 언어는, 때로 무인도의 소요騷擾
때로는 광장에서의 적막
그 소슬한 비문非文의 바다를
뫼도 뫼도 없는 종이배로 표류하고 있었다
허무와 모순의 사막에서는
내가 나의 오아시스요 신기루였다
약수하는 타인들마다
그 이기심에 빨을 달아주고
더는 낮출 수 없이 내 앓은기를 줄여도
말보다 무거운 침묵은 늘 내 몫이어야 했다
앞뒤가 없는 욕망의 정수리에
아무리 고요와 청명의 향수를 뿌려도
그것은 일출과 함께 사라지는
새벽 이슬일 뿐
정오의 발톱도 없이 밤을 울부짖는
나는 백야白夜의 무너진 호랑이었다
시詩와 함께 기르는 다만 한 그루
사랑의 상록수만
지상에서의 의미를 허락해 주었다

"겨울은 세월 다 지나 이제 버렸으면, 버려질 시간을 기다리는 울 나간 스웨터를 닦았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했을 테니, 쉽게 버릴 순 없겠지요. 그래서 업고 갔죠." 이런저런 스웨터들이, 추억들이, 그 미련들이 하나 둘, 바쁜 채비를 준비해야만 할 것 같은 계절일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뺨뺨처럼 사람들은 뒤뚱뚱뚱 어딘가로 향하고, 어딘가로 들어서거나, 거리를 서성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만든 풍경은 그래서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에 잠깁니다.

김규성 시인의 언어의 세계, 언술, 언표의 문 기동에 기대 서서 편하게 차를 한 잔 하고 나온 기분입니다. 저는 김규성 시인의 시를 좋아하면서 역시 김규성 시인을 좋아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편하게 말을 돌리지 않고 제 생각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유를 이야기하다 언술과 시니피앙을 따로 떼어 낸 뒤, 상징과 환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 주변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인자하신 분! 2025년 한 해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힘을 빌어, 사랑과 희망을 논할 수 있는 김규성 시인의 시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주위의 온 세상이 고요하네요. 한겨울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동훈

관리번호	953243		
성명	김 동 훈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1897)		사망년월일	1937-12-14
본적	함경북도 경성		

공훈록

러시아 연해주에서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에 소속되어 항일투쟁에 참여하였다.

고려혁명군은 3.1운동 이후 노령과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편성된 부대로 1921년 자유시참변을 거친 뒤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후 주둔지였던 극동공화국 아무르주 스보보드니[自由市]를 떠나 이르쿠츠크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고려혁명군은 한,중 국경지대로 진출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후방의 안전지대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훈련에 종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정치 훈련에 매진한 것이다. 김동훈은 1920년 9월 러시아 스보보드니에서 고려혁명군에 입대하여 1921년 고려혁명군 제2기관 총대 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料(국가보훈처, 1997) 러시아篇 제5권 358, 359면
-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제3권 244~247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бытие года – фильм «Местные»

Подходит к завершению 2025 год, и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года для мног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езусловно, стала премьера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 первом и втором поко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лубоко затронул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стал настоящим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м и культурным событием. Вернувшись с показов картины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создатели картины — режиссёр **Антон Дока** и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 поделились с редакцией подробностями работы,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оказов и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Материал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публикован в газете за 5 декабря).



Премьера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Местные» состоялась 12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кинотеатре «Октябрь» и вызвала глубокий отклик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ртина, над которой её созда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ботали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сним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в Сочи, в Корее,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В основе — 36 интервью и богат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которые освещают корни и идентич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ямые устные рассказ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й, комментарии экспертов,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корейцы оказались и ост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изложены так глубоко и подробно, что фильм по праву можно назвать учебником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смысле и памяти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так раскрыл более глубокий смысл их работы: «Когда первые два поколения, приехавшие на Сахалин, трудились и страдали, они, наверное, делали это с надеждой дать детям лучшую жизнь. Нам никто напрямую не говорил: «Снимите фильм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Но раз мы это сделали, то, думаю, мы как поколение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оправдали их ожидания. Не как дети, а именно как поколение».

Дорога к зрителю: от Сахалина до Москвы

После премье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ильм,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оказали в Корсакове,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кеан»,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героинь-бабушек,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съёмках. Из-за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росьб состоялся и повторный показ в «Октябре». Вест о фильме разошлась, и начали поступать приглашения из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К нам обратилась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К, Ко Ен Сун – Светлана Яковлевна, сама вышла на связь и ездила с нами по районам. Мы побывали с показами в Поронайске, Углегорске, Невельске и селе Правда», — рассказывает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Фильм также стал частью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нь зарубежного корейца (организатор ЮСМОК, конференция АС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нициативы, проекты, результаты») и др.

Недавно создателей пригласили на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ёжи стран СНГ в Москве, что позволило провести показы в столиц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Москве прошло два показа, а также удалось съездит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с улыбкой отмечают авторы.

Живой отклик и самые трогательные слова

После каждого просмотра создатели обязательно общаются со зрителями. «На каждом показе звучало много приятных, тёплых слов и слов поддержки», — говорит Сергей Ха. Самой запоминающейся для него стала реплика одного зрителя: «Хотелось 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ваших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вос-

питали таких сыновей». Услышав это, Сергей сразу же позвонил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Антон Дока отмечает, что вопросы зрителей часто похожи: будет ли продолжение, когда и можно ли будет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 в интернете. Он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фильм пока не увидело много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ледие для новых поколений и вдохновение для других

Создатели надеются, что их картина поможет подросткам 4-го и 5-го поколений понять свои корни. «Хочется, чтобы молодёжь посмотрела фильм и поняла, как мы здесь оказались», — делится Сергей Ха. — И чтобы больше ребят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ом, находили и снимали свои истории, в том числе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Антон Дока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московского форум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корейц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в 1937 году в Среднюю Азию, — один народ, но с разной историей. Мы очень волновались, как «материковские (среднеазиат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мут наш фильм, но получили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и тёплый отклик».

Интерес к фильму вышел за рамки форума: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Сахалин авторы получи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каз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от молодёжи, с которой познакомились в Москве.

О творческой кухне: музыка и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по ИИ

На вопросы о работе над фильмом — сочинение музык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 Антон Дока ответил так: «Музыку стал писать лет в 17-18,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т. При создании фильма понял, что нужна азиатская ментальность, и стал сочинять сам, взял за основу старые наброски, сделал аранжировку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 каягым.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спользовал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но — только для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некоторых старых архивных фотографий. Для создания музыки или контента ИИ не применял. В сгенерированном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материале нет души».

Планы: фестивали, субтитры и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Сейчас создатели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или работу над корейскими и английскими субтитрами для фильма. В переводе на корейский очень помогли журналисты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Также идёт процесс получения прокат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участия в кинофестивалях, где показы часто проходят в кинотеатрах.

Фильм «Местные» ждёт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Создатели получили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фильм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Ансане и Кимпхо для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ернувшихся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оездка состоится благодаря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х друзей на Чечжудо.

Для Антона Доки и Сергея Ха этот год прошёл под знаком фильма, который стал их общей миссией. А для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Сахалина «Местные» стали больше, чем кино — это собранная по крупицам живая память, которая теперь будет передаваться дальше.

Виктория Бя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восем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48).

Его активна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чалась в 1919 году, когда по всей Корее прокатилась волна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8 апреля 1919 года Пэ Чи 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Квак У Ёном, Нам Гун Хёком, Со Сан Боном и другим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организовал и возглавил демонстрацию в районах Намгё-дон и Чук-дон города Мокпо. За участие в этих событиях он был арестован японской полицией и в июне того же года осуждён Мокпо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Кванджуского окружного суда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кона о печати, получив срок один год и шесть месяцев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Пэ Чи Мун продолжил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В 1924 году он вступил в Мокпоское прелатарское молодёжное общество, а в январе 1925 года стал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умок-чхонёнёнмэн — молодёжного союза региона Мокпо, провозгласившего своей цель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общества в интересах народных масс и борьбу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прелетариата.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ималась проведением лекций и собраний,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кой забастовок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ских волнений. В августе того же года Пэ Чи Мун создал Чонви-донмэн — авангардный союз, ставши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платформой дл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Мокпхо. Помимо этого, он руководил созданием Мумок-нон-ёнмэн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го союза) и Мокпхо-нодон-чхондонмэн (объединённого рабочего союза города Мокпхо), тем самым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я в молодёжном, рабочем и крестьянском движениях региона.

В июне 1926 года Пэ Чи Мун вступил в Чосон конгсандан — Корейскую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В сентябре 1927 года о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Мокпоскому отделению Синганхве — масс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ившей левы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и социалистов в едином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м фронте. Однако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вновь была прервана арестом: в сентябре 1927 года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задержали его, и

в феврале 1928 года он был приговорён к полутора годам заключения. В марте 1929 года Пэ Чи Мун вышел на свободу по истечении срока наказания.

Тюремные заключения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и его борьбу. Пэ Чи Мун возобновил работу в Мокпоском отделении Синганхве, а в феврале 1930 года примкнул к движению з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возглавляемому Ким Чхольсу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ссозданию партии. В июле 1931 года он занял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кпо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инганхве, став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антиколони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этом регионе.

Пэ Чи Мун скончался 20 мая 1942 года. Посмертно, в 1990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знано его заслуги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и награждено орденом «За заслуг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а» степени «Эгукджан».

(5) Ли — китай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мера длины, равная 300 или 360 шагам.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востоковеда И. Бичурина ли составляла 571,5 м. Сейчас принята стандартизированная мера длины ли, равная 500 м. В китайских идиоматических выражениях тысяча, десять тысяч ли означают очень долгий путь. Существует древнее китайское выражение, происходящее из основного сочинения китайского философа Лао-цзы: «Путь в тысячу ли начинается с первого шага». Есть также выражение «могучий орёл может пролететь десять тысяч ли», который означает «широ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Однако, наряду с ним существует и выражение «хромая черепаха одолевает тысячу ли», то есть «непрестанными усилиями даже при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ях можно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еликая китайская стена по-китайски иногда называется «стеной длиной десять тысяч ли».

На фото: лицевая карточка лица, подлежащего наблюдению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Пэ Чи Мун в возрасте 25 лет в тюрьме Содэун. 1914 г.

Юлия Дин, к.и.н.

Русский язык стал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изучения в школах КНДР

Русский язык стал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изучения в школа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4 класса,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Ф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о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РФ и КНДР.

«Русский язык введён в школах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языка для изучения с 4 класса. В Росси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учают более 3 тыс. школьник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или третье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 сказал Козлов на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комисси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Москве.

По его словам, две страны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в ча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отдельным отраслям: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ят банкиры, энергетики, ме-



дики, геологи.

«Например, 29 корейских геолог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ошли курсы на базе российских геолог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зучали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поисковые и разведочные работы, методики лабораторных анализов, картографирование, работу с базами данных», — сказал он.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сообщил, что в прошлом учебном году (2024-2025 гг.) 96 граждан КНДР поступили в российские вузы, в основно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ДВФУ), МГИМО, РУДН.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Социальн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уменьшит поляризацию

Социальн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обенн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помогут уменьшить поляризацию в обществ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16 дека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блема поляризации затрагивает все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политику, общество и экономику. В этой связи необходима смена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адигмы в сторону справедливого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оручил изучить мер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образова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 жильё.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зрачная проверка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доверия и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н призвал госслужащих учитывать это уже на этапе подготовки отчетов о работе, пообещав учред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награды за преданность и дости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РК посещает Узбекистан и Турцию

15 декабря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У Вон Сик отправился в зарубежную поездку, в плане которой посещение Узбекистана и Турц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У Вон Сик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третьем совещании спикеров парламентов РК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т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ад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остоин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защит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ената Узбекистана Танзилой Нарбаевой и спикеро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 Нуриддином Исмоиловым.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вопросы расширения учас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круп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укрепления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мках Офи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ю (ODA) на парламентском уровне.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Турцию У Вон Сик проведёт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ели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Нуманом Куртулмушем.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пути развит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РК и США обсудили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16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встрече, первой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он Ён Ду и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США в РК Кевин Ким. Подробности встречи не разглашаются, но ране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МИД отмечали, что она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широкому обсуждению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ключая пут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Пхеньяном. Да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лидерами РК и США, о регулярных консультациях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Кроме того, и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заявляют о своей готовности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Опрос: Лучшее за год — время с семьёй

28%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лучшим, что у них было в уходящем году. время, проведённое с семьёй. Далее следовали регулярные физические упражнения (27,2%) и время, проведённое с друзьями и знакомыми (14,1%).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20 по 22 ноября компанией Lotte Members среди тысячи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Respondенты могли дать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23,7% опрошенных ответили финансов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и инвестиции к худшим результатам года. Самым желанным новогодним подарком стали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и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Их хотели бы подарить 35,6%, а получить — 41,5%. Кроме того, 43,3% опрошенных сообщили, что планируют отпуск или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онце года, что на 12,9%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При этом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планом на конец года стал отдых дома (41,3%). Далее следовали поездки внутри страны (39,5%), новогодние вечеринки (33%),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29,6%) и зарубежные поездки (19,6%).

РК и Норвегия обсуди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удострое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К на торговых переговорах Пак Чон Со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орвегии Ранхильд Шёунер Сирстад обсудили 16 декабря в Сеуле пути расшир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удострое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К. С учётом роста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в мировой торговой среде, обусловленной усилением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текционизма и ослаблением Всемирной торг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акт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способного принести взаимную выгоду. Собеседник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норвеж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остановленной в 2016 году. Они отметили, что это позволит укрепить основу для обменов между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 совместного поиск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RKI

Спецпрокурор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дал в суд дела на 27 заговорщиков из высшей власти

В Южной Кореи завершен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курорская групп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Чо Ын Сока по итогам 180 дней работы передала в суд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в отношении 27 фигурантов, включая экс-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Юн готовил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еще с 2023 года и пытался намеренно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КНДР на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формальный предлог для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нутр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елью был захват и монополизация власти с прицелом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ктатуры.

Оглашение официальных итогов было сделано в понедельник 15 декабря личн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окурором Чо Ын Соком, который, согласно неофициальным оценкам, руководил самой важной спецгруппой следователей. Ему поручили разобраться в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араллельно работал еще один спецпрокурор, который вел обви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супруга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а, Ким Гон Хи, третий их коллега занимался расследования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 гибели морпеха и попыток переложи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 других лиц.

В итоге в рамках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пецпрокурора Чо Ын Сока обвинения предъявлены 27 лицам - экс-президенту, бывшем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у, чле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трудник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военному и полицейск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а также политикам.

Первым судебным ориентиром для всей серии процессов, как ожидается, станет приговор по делу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Хан Док Су, 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го назначено на 21 января. Он обвиняется в пособничестве мятежу и, по версии спецпрокурора, не выполнил обязанность по сдерживанию незаконного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рокуратура запросила для него 15 ле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Этот приговор станет первым юридическим решением по делам о мятеже и может задать тон для последующих процессов.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расследовании занимает дело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ого спецпрокурор трижды привлекал к уголо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уде у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дело о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властью и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нии осуществлению должностных полномочий, связанное с созывом неполного засе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накануне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уничтожением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сле его отмены.

Еще два дела, включая обвинен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вокаций против КНДР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предлога для введ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режима, ожидают начала

полноценного судебного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Отдельным блоком выделено дело о предполагаем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дл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Пхеньян. По версии следствия, экс-президент,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 и экс-глава военной контрразведки Ё Ин Хён стремились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рост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ее как обоснование для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Рассмотрение этого дела начнется в январе, при этом часть слуша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закрытом режиме из-за наличия сведений, составля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тайну.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Юн начал готовиться к введению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до октября 2023 г., на что указывают его неоднократ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о наличии у него "чрезвычайных полномочий", показания свидетелей, а также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и назначения в армии. В частности, он убрал с поста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и других ключевых должностей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заранее обозначили свою оппозицию идеи введения в стран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Целью мятежа являлось подавление оппозиции силовыми методами, монополизация и удержание власти. В планах у Юн Сок Ёля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ие мощной диктатуры посредством контроля органо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судебно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ей, мобилизации армии и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чрезвычайного органа.

Отмечено, что супруга президента Юн, Ким Гон Хи не участвовала в процессе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а наоборот, согласно показаниям, устроила мужу скандал за его действия. По словам свидетелей, она кричала, что Юн "все испортил и разрушил". Ким же уже грозит 15 лет тюрьмы за коррупцию, манипуляцию акциями и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политику.

В рамках расследования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дела бывших министров 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обвиняемых в содействии введению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ключая эпизоды с приказами о прекращении подачи электр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МИ, попыткам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спецслужб и препятствованием голосова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за отмену чрезвычайн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ряда фигурантов судебные процессы стартуют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вершени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и передача дел в суд ознаменовали переход дела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новую фазу - фазу судебны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исход которых может име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правов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главных приговоров суд внесет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в январе-феврал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им Чен Ын назвал чудом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перов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НДР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ую церемонию в честь военных инжене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Курскую область для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и других задач.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подчеркнули личное участие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убликовались кадры, где он обнимает раненого бойца в инвалидной коляске и утешает семьи погибших. В выступлении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120 дней" ожидания возвращения саперов "казались десятилетиями", а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л резкую риторику в адрес Запада, утверждая, что "даже вооруженные до зубов западные банды" не смогли противостоять "революционной армии"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за "менее чем три

месяца" опасная территория, которую ВСУ оставили заминированной, была превращена в безопасную, назвав это чудом, и отдельно упомянул вклад связистов и военных медиков. Ким лично возложил цветы у "стены памяти" с портретами погибш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ойцов, а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и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Напомним, что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прошло также награждение полка.

Производивший разминирование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528-й инженерный полк КНА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Свободы 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I степени, а погибшим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Гер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дным вручили орден и почетные зна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РК развёрнуты новые управляемые ракеты «земля-земля»

В РК развёрнуты новые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ые управляемые ракеты класса «земля-земля» способных поражать дальнбой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орудия, спрятанные в пещерах. Как сообщили 16 дека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так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KTSSM, получившая прозвище «убийца дальнбойной артиллерии», разрабатывалась после обстре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строва Ёнпхёндо в 2010 год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ая ракета повысит опер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К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системную разработку мобильной версии KTSSM-II с увеличенной дальностью, улучшенной проникающей способностью,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ны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живучести и операти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KBS World

Ли Бён Хон в десятке лучших киноактёров года

Американская газета New York Times опубликовала список десяти актёров, наиболее ярко проявивших себя в лучших фильмах года. В их число вошё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Ли Бён Хон, исполнивший главную роль в фильме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New York Times высоко оценила актёрскую игру Ли Бён Хона,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в её как «почти невообразимую».

Кроме того, Ли Бён Хон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американскую кинопремию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ая мужская роль», в связи с чем его включение в список привлек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американских СМИ.

KBS World

50 ветеранов СВО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и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ось обучение первого потока участников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 его итогам 50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своили специаль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 муницип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егодня в з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м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С завершением обучения выпускников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ы успешно освоили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для ветеран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Она является аналогом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ремя героев» и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з вас, закаленных в бою и преданных Родине людей, мы формируем новую кадровую элиту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ша почетная обязанность — помочь вам найти свой путь в мирной жизни. Благодарю каждого з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учебе,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и желание трудиться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ядка 12 выпуск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уже трудоустроены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м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рганам.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тоит задача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ой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обучения. Эту функцию возьмет на себя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для котор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етеранов СВО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Отрабатывая вопросы реабилитации, переобучени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аждого демобилизованного бойца,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рабатывают ценный опыт,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ВО и массов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ее участников домой.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зволяет ее выпускникам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лександр Егоров окончил программу с красным дипломом. В зон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н отправился добровольцем, на время покинув руководящую должность. Служил в отряде «Тигр».

— Сейчас я работа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местителем директора. Тем не менее для меня было ва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бучение помогло мне в получении новых знаний, приобретении друзей.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сегодня для ветеран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открыто очень мног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Принят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позволяющий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второе техн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ерьезн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ывает Фонд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Егоров.

Карьер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уж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и выпускники программы Руслан и Мушфик Алмазовы. Оба воина отмеч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за блестящее выполнение боевых задач. Руслан — медалью «За Отвагу», Мушфик — медалью Жукова.

—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мы переехали из Одес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феврале 2022 года я получил гражданство, и почти сразу началась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Мы с братом посчитали своим долгом встать на защит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отстаивает интересы и российского, 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ов. Вместе мы записались в добровольцы, попали в штурмов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Первое ранение с братом тоже получили вместе — подорвались на одной mine. После повторных ранений оба были комиссованы. И сегодня тоже вместе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об успешном завершении обучения по программе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поделился Руслан.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вр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неформальную встречу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нонсировал запуск в 2026 году второго потока об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тарте приема заявок будет объявл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Также ветеран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братиться с волнующими вопросами 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Так, губернатор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об открытии в регионе центра высокоточной стрельбы.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приняты конкретные решения по адресным обращениям ветеран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ержала двойную победу в V сезоне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емии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равды».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достоено первого места в 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а также стало призерами по выбору экспертов в престижной номинации «Экорегión». Высокая награда присуждена за досрочное достижение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раженный синергетический эффект, где эколог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сочетается с динамич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остом. Ключевые результаты проекта (2019–2025 годы)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Так, достигнута углеродная нейтральность: нетто-выбросы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снизились с 789 000 т до -82 000 т CO₂-экв. При этом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за этот период вырос на 51%.

Суммарные атмосферные выбросы в регионе сокращены на 28%.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Чистый возду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бросы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снижены на 35% относительно базового 2020 года.

Экологиче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тала катализатором позитив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занимает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рейтинге субъектов РФ и входит в топ-10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 Эта победа — результат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ы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Мы доказали: углеродная нейтральность не противоречит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получить признание в юбилейный год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равды». Ваши материалы вдохновляют нас на новые свершения. В 2026 году продолжим укреплять статус «зеленого» региона — с фокусом на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и цифровизацию экомониторинг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Сам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а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ремия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равды» (проводится с 2021 г.) —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наград в России.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вручаются два диплома: по итогам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и по решению экспертов. Номинация «Экорегión» оценивает динамику снижения выбросов CO₂, внедрение низкоугле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зрачность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тчетности и вовлеченность граждан в «зеленые» инициатив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спортивной борьбе

с участием олимпийских чемпионов

14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спортивной борьб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единоборств встретились сильнейшие спортсмены России, США, Казахстана и Азербайджана.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оей речи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региона.

— Сегодня почти 70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растет каждый год.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дряд мы занимаем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вовлеч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в спорт. Для этого у нас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Центр единоборств построен два года наза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ткрыли лучший бассей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А пару дней назад —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Эти объекты доступны для всех жителей. Дети записываются в секции, взрослые приходят, что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себя в форме. Это помогает нам формировать культуру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ой интригой вечера стал поединок между чемпионом Европы россиянином Ибрагимом Ибрагимовым и призером мировых первенств, чемпионом США американцем Джоуи Маккенной. Спортсме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разные школы борьбы. И в непростою бою победа досталась Ибрагиму Ибрагимову.

Не менее зрелищной вышла схватка между чемпионом мира из Казахстана Ризабекком Айтмуханом и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Олимпиады-2024 Магомедханом Магомедовым из Азербайджана. До этого спортсмены встречались на ринге лишь раз. Тогда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Ризабек Айтмухан. Магомедов взял реванш и одержал победу.

Турнир проходил в рамк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лиги PWL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на призы компании «Горняк-1». В молодеж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десят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и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спортивной борьбы России Михаил Мамашвили. А заслуженный мастер спорта Вадим Лалиев и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страны U-23 Заур Ботаев провели для юных борцов мастер-класс.

— На Сахалине я уже третий раз 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нимаю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м мастер-классы, чтобы передать опыт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Заметил, что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ахалин мощно развивается — вид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как детей, так и родителей. Регион движется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добавил Заур Ботаев.

Отметим,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е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ась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современные спорткомплексы,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массовый спорт. Власть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ют развитие борьбы и друг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ся турниры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А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успешно выступают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етераны и семь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ыступят на памятном концерт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член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КСВО).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поздра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передовой,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а также участие ветеранов и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памятном концерте.

— Наши бойцы — пример стойкости, мужества и несгибаемой воли к победе. Их заслуги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ал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Мы регулярно ездим в зону СВО, встречаемся с ребятами и не понаслышке знаем об их потребностях. Налажены поставки на передовую посылок со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мотоциклами, квадроциклами,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РЭБ, оптикой. Грузы отправляем в огромных объемах. Поддерживаем наших парней и вместе побеждаем — как в тылу, так и на фронт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митет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начал работ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и года назад. Тогда жены и матер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ешили поехать на Донбасс и лично проверить,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 быт сахалинских воинов на передовой.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зону СВО отправилась Ирина Нигматулина. Сахалинка подчеркнула — основными задачами на тот момент были материнский контроль и помощь ребятам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в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 Когда приехала в зону СВО, я не увидела ни одного бойца, потерявшего дух. Каждый был занят своим делом — варили еду, рыли окопы, работали с техникой. Тогда проблемой были инструменты. После нашего сигна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ментально отправило на передовую наборы ключей для артиллеристов. Сегодня тонны грузов отпра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о. Каждый воин верит в Победу.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довести дело до конца, — сказала Ирина Нигматулина.

Как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СВО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с мо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ведет всестороннюю работу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бойцам и их семьям в прям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фондом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дневно проходят заседани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х комиссий, на которых обсуждают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 с актив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СВО предстоящие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и поздравле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ак, 21 декабря активисты отправятся в зону СВО, где вручат бойцам сладкие подарки. Поздравят и детей бойцов — все они также получат подарки и посетят новогод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рина Нигматулина выступил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рганизовать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ветеранов СВО и семей героев. Многие из них занимаются творчеством — пишут стихи, сочиняют песни, рисуют. Их творчество отражает непоколебимое мужество и отвагу,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и верность товарищам.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я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узы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уже подготов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филармония. В нее войдут выступления ветеранов, их жен, детей и матерей — всех, кто захочет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Там же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 работ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в 18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52 волонтерских объединения, которые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Помимо прямой работы с семьями бойц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в зону СВО регулярно отправляют личные и общие посылки. Мамы и жены бойцов, а также все желающие изготавливают сухие души и сублимированные суповые наборы, шьют вещи,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За три года работы КСВО на островах уд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множество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Своей кухни» снимают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е фильмы о бойцах и их семьях. К проекту подключились 19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нициати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плочение семей, поддержку духовных ценностей, а также на увековечивание памяти героев. Также открыта комната памяти с фотографиями бойцов.

—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ьшой проект по оказанию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бойцам. В Ростове, где находится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госпиталь, сахалинские активисты КСВО совместно с сотруд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оцзащиты встречают ребят и помогают им оформить документы, обеспечивают одеждой, предметами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Также на примере сервиса «Острова.65» был создан чат-бот «КСВО-Право», куда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ак бойцы, так и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К работ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подключены юристы со всей страны. Это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сервисов,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л 8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подытожила Екатерина Шарафие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에서도 한국 이름 지켜온 사할린 동포, 주민등록증엔 김산우?

국적 따니 외국 발음대로 정해져 '채조수기·이나꼬사리' 등 황당 주민등록증 '원지음' 규정에 불만 개명 불가피... 정부에 개선 요구



사진은 지난달 17일 안산시 고항마을에서 사할린2세 동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5.11.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러시아에서도 동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한국식 이름을 지켜왔는데...”

사할린 동포 2세대인 제재숙(75)씨는 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던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21년 한국에 영주 귀국했다.

한국 국적을 얻고 주민등록증을 받은 그는 등록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의 이름이 생뚱맞게 '채조수기'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제재숙'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내 이름을 서투게 부르던 발음대로 한국 이름이 정해졌다”며 “분명 동포로서 한국 국적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나를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국식 이름을 러시아식 발음으로 읽히는 대로 이름이 표기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재숙씨의 러시아 이름은 'Зе Де Суги'(로마자 Ze De Sugi)로, 한국식 이름을 러시아식 발음으로 읽히는 대로 적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외국인명표기지침'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외국인등록표에 한글 성명이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인은 로마자 성명을 기준으로 이름의 '원지음'(원래 지역에서 읽는 발음)에 따라 이름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 예규에 따라 사할린에서도 쓰던 제재숙이란 이름이 정작 모국에 와서 '채조수기'로 바뀌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이다.

사할린 동포 2세대인 김상우(74)씨는 올해 5월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가 국적을 얻는 과정에서 한국식 이름이 러시아식 발음으로 부르는 '김산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지켜온 한국식 이름이 이상하



김상우(現 김산우) 씨 신분증.

게 바뀌어 황당했다”면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나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지난 1939년 가족들과 함께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사할린 동포 1세대인 이복생(91)씨의 한국 이름은 '이나꼬사리'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고국이 없던 시절부터 한국식 이름을 지키며 살아왔다”며 “그토록 바라던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름은 러시아식 발음으로 정해져 본래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영은 인천사할린복지회관 사무국장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 1세대 어르신들은 6·25전쟁과 미·소 냉전으로 모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기간이 길어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면서도 “정작 한국에 돌아왔는데 누가 봐도 외국인의 이름을 가지게 돼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할린 동포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러시아식 발음이 아닌 한국식 이름으로 표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상구 지구촌총동포연대 대표는 “러시아에서도 발음조차 어려운 한국식 이름을 지켜온 동포들에게 또다시 러시아 발음대로 이름을 적게 하는 것은 '동포'라는 단어의 뜻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동포들이 한국식 이름 석 자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칼럼·에세이

'가치 지향'과 '가치 중립' 사이, 언론의 위치는?

'중립'이라는 이름의 '침묵', '지향'이라는 이름의 '편향'... 그 사이에서

“아무게 기자는 정치 편향적이야.” 혹은 “저 기자는 너무 좃대가 없어.”

언론계 안팎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전자는 기자가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고, 후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무색무취하다는 지적이다. 얼핏 상반된 평가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언론인의 '가치관'에 대한 오해와 기대가 뒤섞여 있다.

전자의 비판은 언론인의 '가치 지향적 보도'를 정치적 편향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지적은 기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를 무기력하거나 소신 없는 태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연 언론은 언제나 완전히 중립적일 수 있을까? 혹은 특정 가치를 드러내는 보도는 곧 편향된 보도일까?

'가치 지향'과 '가치 중립'이라는 두 축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할 것인가를 둘러싼 깊은 고민과 연결돼 있는 오래된 논제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흔히 '양쪽 말을 다 들었다'거나 '사실만 썼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되지만, 실제 언론 보도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사안을 보도(게이트 키핑)할지, 어떤 표현을 쓸지, 어떤 사진을 배치(어젠다 셋팅)할지 모두 기자의 판단이 반영된다. 이 판단의 바탕에는 항상 크고 작은 가치관이 작용한다.

전통적 객관성의 이상과 학자들의 접근

전통 저널리즘에서 '객관성(objectivity)'은 언론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자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한 채 정보를 전달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가치 중립'은 특히 20세기 미국 저널리즘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의 기반으로 강조됐다.

미국 언론학자 마이클 셔드슨은 <뉴스의 발견: 미국 신문의 사회사(Discovering the News, 1978)>에서 “객관성에 대한 믿음은 '사실'에 대한 신념, '가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둘의 분리를 향한 헌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성이 단순한 취재 방법이 아니라,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본다.

또한 언론학자 월터 리프먼은 <여론(Public Opinion, 1922)>이란 고전적 저작을 통해 언론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복잡한 현실을 해석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여론을 만든다”고 지적하며, 기자가 정보의 해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객관성 비판과 새로운 이론

하지만 객관성이 과연 완전히 구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어떤 기사를 쓸지, 어떤 순서로 보도할지, 어떤 제목을 달지 같은 편집 결정은 이미 그 자체로 '가치 개입'을 포함한다. 즉, 보도에서 완전한 가치 중립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목표다.

스티븐 J. A. 워드는 <저널리즘 윤리의 발명(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2015)>에서 '실용적 객관성(pragmatic objectivity)'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인간적 얼굴을 한 객관성(Pragmatic News Objectivity, 1999)>에서 “객



▲ 마르코 루비오 미국 연방상원의원(현 국무장관)이 지난 2016년 6월 12일 오마르 마틴이란 남성이 49명을 살해한 현장 플로리다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 클럽 인근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곤

관성은 절대적 중립이 아니라, 정당한 사실 검증과 균형 감각,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는 자세”라고 설명한다.

워드의 주장은 '객관성=중립'이라는 오랜 통념을 비판하고, 기자도 적극적인 판단과 해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 이 해석이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가치 판단의 정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가치 지향 저널리즘의 확대

1960~70년대 이후 등장한 옹호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인권, 소수자, 기후 위기, 사회적 약자 등 특정한 공공 가치에 기반해 보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편향과는 다르며, 오히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시어도어 L. 글래서는 <양심의 수호자들: 탐사 저널리즘과 공적 덕성(Custodians of Conscience, 1998)>에서 “기자가 철저히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신 공공의 도덕적 가치에 기반해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옹호 저널리즘은 객관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의 정의 실현이라는 더 넓은 객관성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자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보다, 어떤 원칙에 따라 누구를 위해 보도하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가치의 방향'과 '투명성'

결국 언론이 가치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기반해 보도하는가와 그 기준이 독자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되는가가 핵심이다. 언론은 '정치적 중립'이 아닌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선택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검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진보나 보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다. 최근 한국 언론계에서 보수의 대부로 알려진 조아무개 원로 기자와 정아무개 기자가 전통적 진보층의 신뢰를 쌓는 이유이기도 하다. '편향적'이라는 낙인과 '좃대 없다'는 비난 사이에서 언론은 단순한 이미지보다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사와 콘텐츠가 쏟아진다. 언론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기자가 자신의 보도가 어떤 가치관과 판단에 기반했는지를 독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저널리즘일 것이다.

(코리아워클리-플로리다 김명곤 기자)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비교해 보면, 지난해 11월 공급액은 330만 달러였다. 따라서 1년 만에 수입은 75% 이상 증가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는 총 4,200만 달러 상당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전년 동기에는 같은 기간 동안 금액이 2,440만 달러로 훨씬 낮았다. 증가율은 거의 두 배에 달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결과를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 라면의 최대 구매국 중 9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억 6,200만 달러의 수입액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은 2억 6,700만 달러의 미국, 7,700만 달러의 네덜란드 순이다.

Россия за месяц купила 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на миллионы

В ноябре 2025 года Россия закуп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а 5,9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меся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как минимум с 2000 года, сообщает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данные таможни Южной Кореи.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тавки составляли 3,3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год импорт вырос более чем на 75%.

В целом за 11 месяцев 2025 года Россия ввезла 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на 42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Годом ранее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сумма была заметно ниже — 24,4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Рост оказался почти двукратным.

По итогам января–ноября Россия заняла девятое место среди крупнейших покупа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Лидером рейтинга стал Китай с объёмом импорта 362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Следом идут США — 267 миллионов и Нидерланды — 77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 남성, 400만 루블리 이상 복권 당첨

사할린 출신 파벨 스미르노브 씨는 복권 추첨에 꾸준히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스포르트로토'복권에 서 3만5천 루블리에 당첨된 데 이어, 최근 424만 670루블리에 당첨됐다. 이번 당첨은 복권 운용사 '스톨로토' 홍보실을 통해 전해졌다.

스미르노브 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며 기술 분야 장비 공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여가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크림반도 휴가를 앞두고 당첨 소식을 알게 돼 휴가를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당첨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복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Уроженец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играл в лотерею более 4 млн рублей

Сахалинец Павел Смирнов является поклонником розыгрышей денег по билетам. Сначала он выиграл 3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портлото», а затем сорвал куш — размер суперприза составил 4 240 670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толото».

Мужчина род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живает в Москве, занимается поставкам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ы.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Павел Смирнов путешествует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Он узнал о победе накануне отдыха в Крыму, что сделало отпуск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ым.

Победитель пока не определился, куда потратит выигрыш. Отметим, что счастливый билет Павел купил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лотереи.

러시아 여성, AI 활용한 장난으로 해고

모스크바의 한 여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장 동료들을 속이는 장난을 벌였다가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AI를 활용한 농담으로 인해 해고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고 SHOT이 보도했다.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6세로 모스크바

의 한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 외 시간에 신경망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에 자주 참여해 왔다. 그는 최근 동료들과 상사를 놀리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 인근에 서 있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생성 이미지를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이후 인사 부서 직원이 “세무서 직원이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상황을 연출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여성은 이에 응해 실제와 유사한 세무 조서관 이미지를 생성해 채팅방에 공유했다.

해당 이미지는 경영진 사이에서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여성이 농담이었음을 해명했으나, 회사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문제 삼아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Россиянка пошутила с помощью ИИ над начальством и осталась без работы

Жительница Москвы разыграла коллег при помощ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и лишилась работы. Это первый известный случай увольнения из-за ИИ-шутки 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SHOT.

По информации Telegram-канала, 26-летняя москвичка работала в марке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и часто генерировала изображения при помощи нейросети. Недавно она решила подшутить над коллегами и начальством и отправила в рабочий чат сгенерированное фото бездомного, стоящего рядом с ресепшеном.

Вскоре сотрудница HR-отдела предложила ей создать фото по более провокационному запросу —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внезапно нагрязнула в офис».

Девушка тут же согласилась, сгенерировала реалистичное фото с налоговым инспектором и отправила его в чат. Изображение сразу же вызвало панику среди руководства. Когда москвичка призналась, что это была шутка, начальник разозлился и уволил ее.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